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구석구석 챙긴다

광주시, 서민생활안정 7개 분야 종합대책 추진

‘행복한 목수단’·방과후 아카데미 등 맞춤형 지원

겨울철을 맞아 광주시가 저소득층과 결손 가정의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 나기를 위해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강화, 방학중 아동·청소년 지원·돌봄 강화, 나눔문화 참여 활성화, 서민물가 안정,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철저, 화재방호 및 구조구급 활동 강화 등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7개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먼저 생활고를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 위기가정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실직 또는 휴·폐업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위기가정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85곳과 차상위 계층 65가구에 월동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2744가구에 연탄·등유 구입 쿠폰을 11월 초 지급했고 추가로 시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을 위한 2015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2016년 제1단계 사업도 연초에 조기 추진한다.

재능기부센터·전문건설협회·건축자재거리 상인회·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행복한 목수 봉사단’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용 보일러 및 장호 교체, 옥상 방수, 지붕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겨울철 노숙인 구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귀향 조치, 응급 잠자리 제공, 시설 입소 보호 등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가사 지원, 이동 보조, 산변 처리,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방문간호·목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에 대한 노인돌봄, 식사 배달, 응급안전 돌봄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취약지 경로당에는 재능기부를 희

망하는 의사들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상담, 틀니사용법, 뜸·침 등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도 민관협력에도 힘을 기울인다.

▲방학 중 아동·청소년 지원·돌봄 강화=저소득층 아동과 결손아동의 급식지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홀로 지내는 아동의 학습지도와 돌봄도 강화한다.

먼저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 1만5000여 명에게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추진하고, 청소년 수련원(관)에서는 방과 후 학습·생활지도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해 겨울방학 중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기계발을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시청 야외스케이트장과 얼음썰매장을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겨울방학 기간 저렴하고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는 6세 미만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장을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나눔문화 참여 활성화=시민들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언론기관과 함께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공직자들의 복지시설 방문 및 자율봉사활동도 추진한다.

▲서민물가 안정 및 안전관리및재난예방=연말연시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생필품 49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에 대해 홈페이지에 가격을 게시하고, 물가 모니터링을 활용한 물가감시 강화와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동절기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폭설에 대비한 종합상황실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문자발송)하고 ‘내집 앞 눈 치우기’운동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도 동파방지를 위해 계량기 전체(13만6000개)에 대한 사전 점검과 동파 예방요령 홍보물 배포, 계량기 보호통 및 보온재 점검 등을 실시하고, 동절기 급수에 차질 없도록 긴급 민원처리반과 비상급수반을 편성 운영한다.

다중 밀집지역과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특별점검과 홍보활동을 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운전도 실시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지역민에 ‘나눔 봉사’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지난 27일 북구 중흥동과 신안동 동사무소를 방문, 소외계층에게 생필품 전달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런 행사에서 도시공사는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 20세대에게 연탄 3000장을 배달하고, 이어 각 세대별로 이불 1채, 라면 1박스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날 행사는 도시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 등 40명이 참여해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올 한해 동안 크고 작은 봉사활동으로 작으나마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면서 “내년에도 더욱 알찬 계획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대표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

채무조정·일자리 상담 등

저신용자 등에 도움이 될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종합금융 6층에 문을 열었다.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하나로, 경기도 부천과 대전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설치됐다.

지원센터는 수요자에게 저리자금·채무조정·일자리 등을 지원하며, 원스톱으로 종합상담부터 심사·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유관 기관이 참여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서민금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직업상담사가 상주하고, 햇살론 관련 상담·대출을 위해 대한저축은행도 참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청년 광주’를 위한 원탁회의

청년의 자립과 자존을 지원하는 ‘청년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의제를 발굴하는 ‘꿈꾸는 테이블’의 마지막 행사가 지난 27일 저녁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개최됐다. /광주시 제공

광주소방본부 “2017년 2월까지 주택에도 소화기 마련해야”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등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당부했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의 화재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 발생한 화재 3226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852건

으로 전체 화재의 26.4%, 인명피해는 44.8%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한 초기 1분은 발화 지점만 연소돼 소화기를 이용해 간단히 불을 끌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손바닥 크기로 자체 전원이 내장돼 별도 시설 없이 천

장에 부착,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이나 소방용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양중근 방호예방과장은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치공원 푸드트럭’ 운영자 입찰 공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우치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먹거리 제공을 위해 ‘우치공원 푸드트럭’ 운영자를 입찰 공고했다.

입찰은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진행한다.

허가 면적은 18㎡이며, 푸드트럭 1대를 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품목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가능하고, 주류와 커피 판매는 제한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민으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푸드트럭 보유

가 가능해야 한다. 푸드트럭 운영자로 낙찰 후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입찰서는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로 제출하면 된다.

12월 8일 최종 선정된 낙찰자는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년간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12월 3일 우치공원과 푸드트럭 예정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부소방서 ‘광주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최우수상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최근 광주소방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서부소방서 기윤희 소방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윤희 소방장은 ‘아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소소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용성과 표현기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광주시장상을 수상하고, 내년 1월 21일 열리는 소방안전교육강사 전국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우수상은 광산소방서 이기동 소방교(119신고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에게 돌아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5개 소방서 교육전담강사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자유주제를 선정해 연구한 내용을 발표, 공유했다.

임근술 구조구급과장은 “교육 전담강사로 지정된 직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 강의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싸고 좋은 물건, 추천합니다!

주인직거래
H.010-3605-5000

투자자모임

- ▶공통투자 가능! 연 20% 수익보장
- ▶돈 빌려주실 분! 연 10% 이상 지급
- ▶비밀 배우실 분! 교육비 등 1200만원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곡성, 전원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 시멘트 벽돌조
- 1층 단독주택, 2012년 준공, 텃밭있음
- 광주에서 30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매매-6500만원

남구 송하동, 임야

- 광주 남구 송하동 산 77번지
- 2026평, 자연림으로 이용중
-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
- 시세/감정가 - 7370만원
- 급매-4500만원(조정가)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12월말 완공)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남구, 신축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20평, 5층 중 5층, 2013년 신축
- 엘리베이터, 베란다(3평), 즉시입주가
- 시세/감정가-1억3000만원
- 매매-1억1000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 19층, 29평, 광주천 방향
- 전체수리, 사무실전용, 대형주차장
- 매매-5500만원(일시불조건)
- 보5백만원에 월 30만원 임대가능
- 용자 3천만원 가능

나주, 임야(배발)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
- 89평, 간선도로에 접함
- 세지 북초등학교 인근
- 현재 배발으로 이용